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동반성장연구센터 연구위원

djlee@kosbi.re.kr



1. 창업의 중요성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워 적절한 사업기회에 자본, 인원, 설비, 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여 제공하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리고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박사.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자문관,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
- 내수 판로 활성화 방안(2012),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HRD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2012), 창업론(2012, 공저), 제조업 및 서비스 적합업종/품목 실태조사(2013), 제조업 적합업종 성과평가(2013)의 다수.

창업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가치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이며, 새로운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활동이기도 하다. 최근 창업은 고용창출과 기술개발 촉진의 기능 때문에 국민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금융 및 세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창업기업의 고용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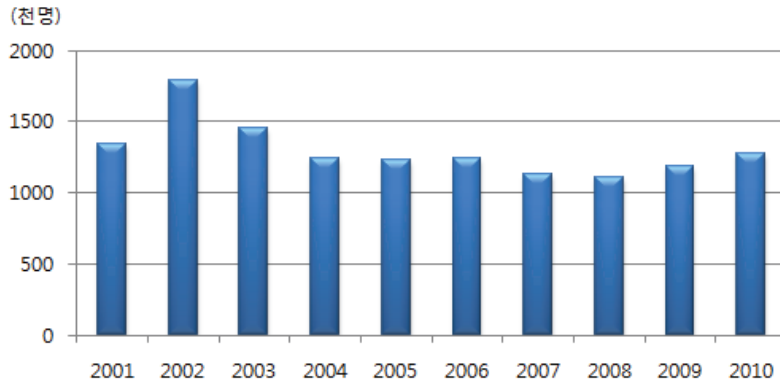
용 없는 성장에 따른 국내 일자리 창출이 미진하며, 특히 청년 실업을 증가는 사회문제 및 국가경제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일자리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2010~2015년 사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수는 최대 53만 명, 2015~2020년 최대 98만 명으로 추산된다.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의 해법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기업은 창업초기(1~5년) 기업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생 창업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규모별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250~499명)보다 종업원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1~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이크로기업의 경우 1980년대 신규 고용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로 제일 높았으며, 2005년에 이르러서도 약 18%를 차지하는 등 다른 규모의 기업보다 고용 창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고용의 문제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창업기업의 고용을 살펴보면 벤처창업붐이 있었던 2002년에 가장 높은 179만명의 고용이 일어났으나 이후 매년 고용 규모가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최근 2년(2009년~2010년)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신생창업기업의 고용이 2008년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의 경우 창업에 의해 1,273만명 일자리가 생겨났는데 이는 전체 고용의 10.4%에 해당한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연간 신설법인수는 74,162개로 전년(65,110개)대비 13.9%(9,052개) 증가하여 신설법인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 기록하였다.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2011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증가하였

으며, 특히 30세미만, 50대의 창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으로 청년층에 유리한 창업환경이 조성되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활동이 활발해 진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창업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규모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규모를 산업별로 구분해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제조업 창업기업의 고용비중은 2006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다시 회복세에 있으며 서비스업 창업기업의 고용비중은 82~84%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건설 및 전가·수도 산업의 창업기업 고용비중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림 및 어업·광업은 0.1%를 유지하고 있다.

창업의 의한 고용규모가 가장 큰 2002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 대부분 업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어업, 전가·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고용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제조업의 기술수준에 따른 고용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저기술 제조업 창업의 고용비중은 2002년과 비교해 2010년 3.6%로 낮아졌고, 첨단기술과 고기술 역시 각각 1.4%에서 1.1%로, 2.6%에서 2.4%로 함께 낮아졌다. 2010년에 첨단기술, 고기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대비 큰 폭의 고용회복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2002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중 큰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의 경우 2002년에 비해 고용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제조업의 2배가 넘는 고용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생계형 창업이 여전히 활발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산업별 창업기업 고용비중 변화

(단위 : %)

산 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업	14.5	12.7	12.2	13.0	13.6	12.2	11.4	9.8	10.0	10.6
첨단기술	1.4	1.4	1.5	1.7	1.6	1.5	1.4	0.8	0.9	1.1
고기술	3.1	2.6	2.5	2.9	2.8	2.5	2.3	1.9	2.0	2.4
중기술	3.2	2.9	3.0	3.2	3.8	3.5	3.5	3.4	3.4	3.3
저기술	6.8	5.8	5.2	5.2	5.4	4.6	3.9	3.5	3.6	3.6
서비스업	80.0	82.2	83.1	82.4	81.8	83.9	82.7	84.4	84.3	83.8
도소매	23.7	23.4	22.8	22.8	21.7	22.6	21.9	21.9	22.5	21.8
음식·숙박	27.7	28.0	28.3	27.1	26.3	27.6	26.9	27.3	26.7	26.4
운수	5.0	4.3	4.5	4.3	4.5	3.9	4.1	3.9	4.2	5.6
통신	0.4	0.5	0.5	0.4	0.5	0.5	0.5	0.5	0.5	0.5
금융·보험	1.2	1.0	0.6	0.4	0.7	0.7	1.2	1.0	0.9	0.8
부동산임대	2.4	3.3	4.0	3.9	3.4	4.0	3.6	3.4	3.4	3.0
사업서비스	3.8	4.9	4.8	5.1	5.5	6.0	6.3	6.2	6.9	6.9
교육서비스	4.3	4.6	4.7	4.7	5.2	5.1	5.2	5.8	5.2	4.8
보건·사회복지	2.3	2.5	2.6	2.8	2.9	3.1	3.9	4.8	4.4	4.8
오락·문화 운동서비스	3.8	4.1	4.4	5.0	5.4	4.5	4.9	4.9	4.8	4.6
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	5.5	5.7	6.0	5.9	5.7	5.9	4.3	4.7	5.0	4.6
건설·전기·수도	5.4	5.0	4.6	4.5	4.5	3.9	4.2	4.1	4.1	3.9
전기·가스 및 수도	0.1	0.0	0.0	0.0	0.1	0.0	0.0	0.0	0.0	0.0
건설	5.3	5.0	4.6	4.5	4.4	3.8	4.1	4.1	4.1	3.9
농림·어업·광업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농업 및 임업	0.0	0.0	0.0	0.0	0.0	0.0	0.1	0.1	0.1	0.1
어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창업진흥원(2012),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3. 창업이 산업전반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창업 당해 연도의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산업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창업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업과 고용변화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일부 연구들은 지역의 창업활동이 지역의 고용 및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 결과들은 창업과 고용성장간의 긍정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 창업과 고용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양한 이유는 양 변수간의 관계가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창업과 고용변화간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시차(time-lag)분석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차모형은 창업이 고용변화의 3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근거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업에 의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직접 효과(direct effects)이며, 두 번째 단계는 신규 진입에 의한 대체효과(displacement effects)로 일자리가 감소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역량의 진입에 따라 두 가지 퇴출(exit)이 일어난다. 하나는 창업기업이 경쟁에 실패해 일정기간 이후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창업기업이 기존기업을 구축(crowding out)함으로써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기존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고용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치열해진 시장경쟁에 의해 고용이 축소되어 일정기간 창업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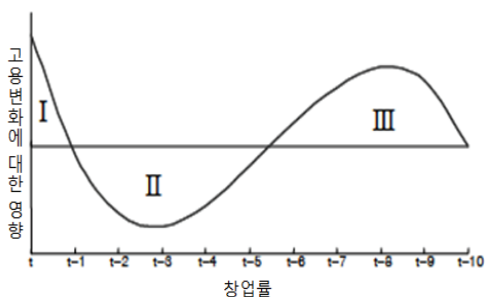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생존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보임으로써 고용이 증가하는 유발 효과(induced effects)이다. 창업에 의한 유발효과로는 다음의 4가지 유형이 거론된다.

- ① 효율성 증대 :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에 따라 기존시장에서의 경쟁이 강화되어 기업간 효율성 경쟁을 초래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효율성이 우수한 기업이 생존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된다. 만약 시장 규모가 불변이라면 생존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증가하고 고용은 감소한다. 그러나 노동절약 효과는 다른 시장에 성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기에 궁극적으로는 산업전반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② 구조적 변화 가속 : 신규기업의 진입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창업기업의 진입이 성공적이라면 필요한 내부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기존기업은 신규기업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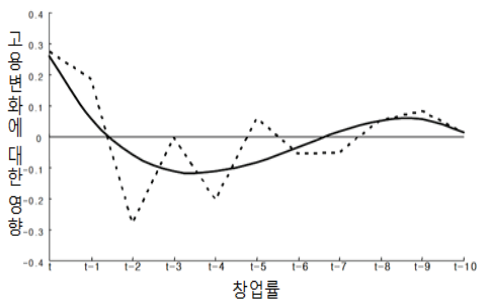
된다. 이는 스펀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 ③ 혁신의 확장 : 창업기업에 의해 도입된 급격한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 새로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신규기업뿐 아니라 기존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신시장의 개척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 ④ 다양성 증대 : 신규기업의 진입은 제품이나 서비스, 솔루션의 다양성을 증대시킨다. 만약 창업기업의 제품이 기존기업의 것과 크게 다르거나, 창업기업이 새로운 공정혁신을 도입한다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의 스펙트럼이 확대된다. 고객이 자신의 기호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은 더욱 분화하여 후속 혁신이 발생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강한 충격을 초래한다.

이상의 원인에 의한 고용유발효과의 규모와 방향은 창업기업의 질과 시장의 효율성에 의존한다. 혁신성으로 대표되는 양질의 창업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 기존시장의 확장을 유도하고 기존기업에 도전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창업기업에 의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기존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시장 효율성은 기존기업이 실제 및 잠재적 위협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응하는가, 더 효율적인 기업이 생존하도록 하는가를 결정한다. 만약 덜 효율적인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유발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림 2] 창업과 고용변화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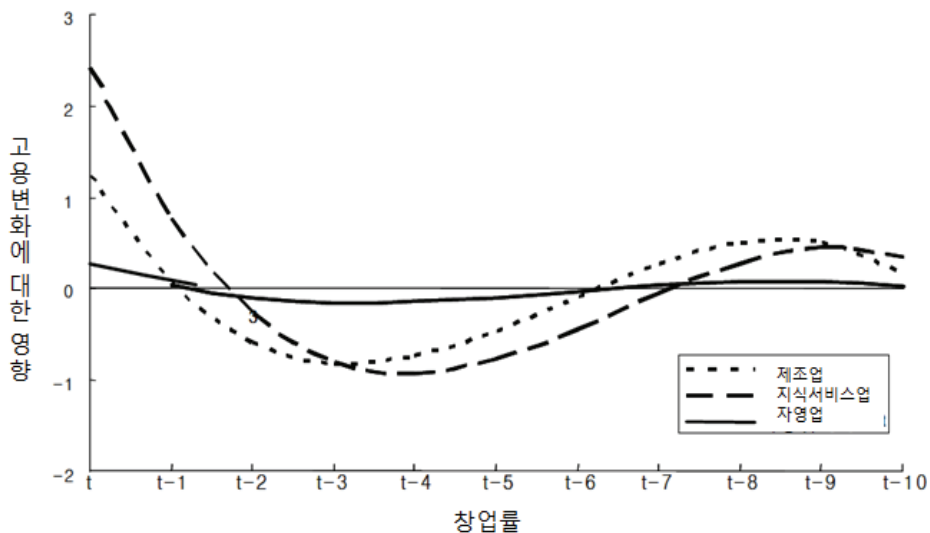
[그림 3] 국내의 창업과 고용변화 관계

우리나라의 사업체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지역의 창업률과 지역의 고용유발효과를 시차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창업은 창업시점과 창업후 1년까지 지역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창업후 2년부터 6년까지는 지역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후 7년부터 10년까지 유발효과에 의해 창업률은 다시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다른 나라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같이 창업과 고용의 관계는 S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창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자영업의 창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자영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영향력의 변동 폭이 좁고 고용창출력도 낮아 창업-퇴출-창업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회전문(revolving door)창업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창업의 경우 I 단계의 효과보다 III단계의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제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식 서비스업 창업의 경우 I 단계에서 큰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III단계의 고용효과는 I 단계에 비해 낮은 수준의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산업별 창업과 고용변화의 관계

이상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조업은 지식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미약하지만 기업의 성장에 따른 추가고용과 업종의 특성상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제조업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 서비스업은 높은 직접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업 창업활성화는 단기적으로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서비스업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대형화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은 고용의 창출보다는 창업과 퇴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고용이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는 잔존형 중소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무분별한 창업보다는 혁신성과 사업성 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우리 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부족, 선진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민소득과 창업률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민소득 1만불 이전의 국가와 국민소득 3, 4만불 국가의 창업은 활발하나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의 국가에서 창업은 침체되어 있다. 국민소득과 창업의 관계는 U자 모형인 셈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창업은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후진국의 창업은 생계형 창업인 반면 선진국의 경우 기술창업이나 시장지향적 창업이 다수이다.

다행히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창업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정부도 1인 창조기업과 같이 다양한 창업지원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제는 창업의 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베이비 부머의 영향으로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 급증하였다. 인구수 대비 편의점 수가 이제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보다 많아졌다. 과잉분야의 자영업 창업이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 창업에 대한 지원이 창업의 질을 고려한 선별지원으로 전화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재능과 역량,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창업, 시장의 수요변화를 반영하는 시장지향형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창업 질에 대한 제고는 제조업에도 필요하다. 현재 제조업 창업은 저기술분야 창업에서 벗어나 중기술분야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제조업 창업이 갖는 고용유발효과를 고려할 때 첨단기술과 고기술분야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2002년 수준으로까지 회복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스라엘식 보육투자시스템 도입 등 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벤처 M&A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패경험이 자산이 되도록 제도 개선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창업기업의 규모가 작을수

록 생존율이 낮아지므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지원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자가 성실한 기업운영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 재창업에 대한 자금 및 서비스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업자가 갖은 위험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창업기업의 고용 차원을 넘어 창업기업이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산업 전반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시장경제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시장경제 주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창업기업의 수, 창업의 질적 수준 뿐 아니라 건강한 산업생태계, 활기찬 벤처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참고문헌

- 창업진흥원(2012),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 이동주·이윤보·김종운(2012), 창업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동주·남운형(2012), 창업론.
- 중소기업청, 신설법인통계 매월.
- 통계청, 사업체조사 각년도.